

K-뷰티, 구조적 턴어라운드 국면… 주요기업 목표주가 급등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역대 최대
에이피알 등 주요기업 실적 개선
증권가 “시장 기대치 웃도는 성장”

‘K-뷰티’ 신흥강자로 불리는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화장품 대장주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상반기 영업성적표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모두 앞지르며 ‘A’학점을 받았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에이피알의 시가총액은 14조4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모레퍼시픽(7조9901억원)과 LG생활건강(4조5450억원)의 합산 시가총액보다 많다. 이는 탄탄한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한 덕분이다. 에이피알의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342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은 2440억원, LG생활건강은 2106억원을 기록했다. 에이피알의 영업이익은 아모레퍼시픽보다 988억원, LG생활건강보다 1322억원 많았다.

에이피알은 “북미를 중심으로 구축한



따능시로 생성한 ‘K-뷰티주의 세대교체’ 이미지.

성장 기반이 유럽 등 신규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며 “앞으로도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가파르게 오른 화장품주의 추가 상승을 내다보고 목표 주가를 속속 올리고 있다. 최근 신영증권은 에이피알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0% 높은 56

만원으로 내걸었다. 한화투자증권(55만원), 흥국증권(50만원) 등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는 K-뷰티가 구조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고, 특정 유통 채널과 일부 대형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기존 공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7.3% 증가한 70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역대 모든 상반기 실적 중 최대치를 다시 썼다.

이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에이피알은 최근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톱 100’에 제품 11개가 들어가는 등 브랜드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며 “회사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확대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침투율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고, 독보적인 마케팅 역량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북미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돼 있고, 유럽 시장은 온-오프라인 성장 확산이 지속 중”이라며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 달성과 글로벌 뷰티 시장 내 독보적인 입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 1면 ‘신세계 강남·롯데…’서 계속

백화점, 구매건수·단가 ↑ 대형점포 중심 질적성장

센트럴시티 복합 인프라를 등에 업은 독보적 입지도 강남점의 강력한 무기다. 연간 약 51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직결된 JW메리어트호텔 서울 투숙객, 한강 관광 연계 외국인 수요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선 거대한 집객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롯데 잠실점은 4조 원 문턱에서 하반기 성장을 유지가 최종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잠실점이 4조 원을 넘기 위해서는 연간 21.2%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2025년 매출에 상반기 수준인 20% 성장률을 단순 대입하면 잠실점은 3조 9612억 원으로 4조 원 코앞에 두게 된다.

다만 잠실점의 상승 동력 역시 만만치 않다. 롯데백화점 국내 대형점의 2분기 매출은 21% 늘었고, 잠실점 역시 상반기 20%대 성장세를 달성했다. 명품과 고마진 패션의 안정적인 판매 호조와 더불어, 롯데월드몰과 결합된 복합 플랫폼 경쟁력이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젊은 층을 끌어모으며 4조 원 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점포들의 질주는 백화점 업계 전반의 유례없는 호황과 맞물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외유명브랜드(명품) 매출은 30.8% 늘어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이번 호황은 구매건수와 구매단가가 동반 상승하는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1~6월 백화점 구매건수는 매달 전년 대비 증가했고, 6월 구매단가는 13만5621원으로 1년 전보다 15.2% 높아졌다. 점포당 매출도 1월 17.4%, 2월 30.1%, 3월 18.8%, 4월 26.1%, 5월 26.8%, 6월 24.4%씩 증가했다. 고객수와 객단가가 함께 뛰면서 대형 점포로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원화 약세까지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1071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늘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소비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고소득층과 외국인 소비를 흡수하는 초대형 점포의 매출 집중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계절적 요인도 긍정적이다. 통상 백화점은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 판매와 연말 세일·사은행사가 집중되는 4분기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김서현 기자 seoh@



신세계 강남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SK하이닉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성과급 60% 주식 지급

주식 중심 성과급 지급구조 전환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공동 대응

SK하이닉스 노사가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성과급 제도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은 6.3% 인상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노사는 성과급 지급방식과 임금 인상률,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률은 6.3%로 정해졌다.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은 전체 지급액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스1

주식 지급분 가운데 40%는 당해 연도에 지급돼 즉시 매도할 수 있다. 나머지 20%는 1년 후와 2년 후 각각 10%씩 이연 지급한다. 이연 지급분은 지급 당해 주식 수 또는 이연 금액 가운데 하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구성원의 선택권도 확대했다.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희망하는 구성원은 주식 지급 비중을 최대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시행 첫해에는 자금 운용 등의 사유가 있는 구성원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급할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 등 세 시점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이번 합의에는 회사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노사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 적자 발생 시 고용안정 대책 등 위기 극복 방안을 노사가 합의한 뒤 임금의 3% 이내를 이연 지급하고, 경영

이 정상화되면 회사가 이를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과거에도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때 임금 이연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바 있다.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도 임금의 일정 부분을 이연하고 휴직 전환이 확인된 뒤 지급했다.

성과급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밖에도 노사는 식단가 인상과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관련 안건에도 합의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2040년 국가 전력수요 전망치 폭증… 추가 원전 논의 불붙나

반도체·AI 등 산업 급격한 환경 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감당 어려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할 경우 2040년 국가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 분량인 27GW(기가와트) 가량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이 같은 전력 폭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법) 수립 과정에서 추가 원전 건설 논의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12차 전기법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 계획소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40년 전력 수요 재전망을 공개했다.

새로 제시된 2040년 연중 최대 전력수

요 전망치는 158.4~165.0GW(목표수요 기준), 기존 전망치(131.8~138.2GW) 대비 약 20% (26.6~26.8GW) 상향 조정됐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APR 1400, 1.4GW) 약 19기를 100% 가동해야 충족할 수 있는 수치다. 수요 관리책을 제외한 순수 기준수요로 산정할 경우 최대 전력수요는 최고 186.4GW, 연간 소비 전력량은 1026.6TWh까지 치솟는다.

이처럼 불과 반년 만에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수정한 배경에는 반도체와 AI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다. 분야별로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에서 20.6GW, AI 데이터센터에서 7.9GW의 수요가 추가 반영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 초 3차 토론회 발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수요 예측을 재전망하게 됐다”며 “2050년까지 예정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이 2040년으

로 앞당겨지고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건설, AI 데이터센터 신설 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대규모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과소 예측으로 발전력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범위형(데인지)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 발전력 준비가 어려운 만큼,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의 추가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전력수요가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발전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더라도 메가 프로젝트 필요 전력의 58% 수준만 충당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 정책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100% 달성해도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고려할 때 약 150TWh로 메가프로젝트 추가수요(약 260TWh) 총량에는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외에, 12차 전기법에 원전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부는 오는 26일 6차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중단, 신규 원전 건설 여부, 송배전망 및 ESS·양수 등 유연전원 배치 방안 등 핵심 쟁점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12차 전기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metro